호매칼럼

누가 누구를 치유하겠습니까?

김 명 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이 내립니다. 우리 마을 호수공원에 하얀 눈이 나무와 풀을 감싸 안았습니다. 가끔은 하얀 세상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오랜만에 걸었습니다. 1년의 삶들이 머릿속을 스쳐 갑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습니다.

12월입니다. 나눔이 필요할 때입니다. 물질적인 나눔도 좋지만, 물질이 없다면 따스한 마음을 나누어야 할 시기입니다.

하얀 눈 위에 편지를 써 봅니다. 눈 위에 쓴 편지는 금세 지워집니다. 눈 위에 쓴 편지는 그대에게 가지 못하니 가슴에 묻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10년 만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며 글을 읽었습니다.

정년 후 음대를 다녀 성악 발표회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악기가 아닌 노래 발표를 하신다고 다시 성악공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공연한 날 수업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지만 성악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선생님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졸업 발표회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힘이 넘치는 매력적인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전하는 당신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완도에 다녀왔습니다. 완도는 어느덧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완도를 넘어 고금도를 지나 약산에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동백나무 숲을 걸으며 그동안 홀로 세월의 무게를 견딘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도 세월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무를 통해 재발견합니다.

약산 치유의 숲 센터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선생님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누가 누구를 치유하겠습니까? 자신이 치유하는 거지요. 여기 먼 곳까지 와서 치유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쉽게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가까운 가족과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치유프로그램 선생님이 "누가 누구를 치유하겠습니까?" 말씀에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타인을 교육한다며 교만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필자의 수업을 들었던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배움의 시간을 주셔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공부하시는 분들의 하해와 같은 마음이 먼저였던 것을 약산 치유의 숲에서 배우고 갑니다. 자연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감탄하나 봅니다.

완도 방문하는 날, 두 분의 리더를 통해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은 우리 동네 동장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밝은 에너지로 먼저 보여주시고 역동적인 교감을 주셔서 모두가 친구 같은 마음으로 문화 탐방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회 회장님입니다. 눈이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일부러 하얀 옷을 입고 오셨다면서 밝은 기운을 보여주시는 리더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리더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완도 명사십리 바다에서는 모두가 아이였습니다. 하얀 모래밭이 펼쳐지는 바다를 보자 모두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하루 일정에 시간이 부족해 테크길만 걷자고 하였는데 바다를 보니 어린아이가 되어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놀라움입니다. 바쁜 어른이 되어 일상을 살다가 자연을 만나니 모두가 아이가 된 것입니다.

교수들이 선택한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과이불개(過而不改)'였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는 뜻입니다.

전국 대학교수 설문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수들 각자의 해석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이불개의 뜻을 읽으며 나라의 리더가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인지, 아님, 잘못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인지, 참 난감합니다.

도전하는 당신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소시민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반성하며 삶에 충실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많으니 세상은 돌아가겠지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치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삶에 도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삶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도 알고 반성하며 타인의 삶도 응원해 주는 삶, 그게 바로 잘 사는 삶입니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연말정산 가장한 피싱 문자 주의해야

김 창 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 관련 안내나 서비스라고 하면서 국세청을 가장한 문자를 보내는 보이스 피싱이 성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했다.

"소득 공제 요건을 조회할 수 있다", 또는 "이만큼 환급받게 될 것인데 확인해봐라" 면서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를 가장한 링크를 보내오는 수법이다.

만약에 이 링크를 누르면 내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려서 원격으로 피싱범이 휴대폰을 조종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뿐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게 된다.

국세청은 절대로 개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으며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로도 갑자기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지 않는다. 국세청도 그렇고 전화금융사기계의 고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검찰 사칭을 비롯한 어떤 정부 기관도 개인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으니 새겨두면 좋겠다.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 홈택스를 이용하면 좋지만, 내가 직접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치고 찾아가야 한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의심 문자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나 의심되면 바로 삭제하는 것이 피해를 보지 않은 최고의 방법이자 예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우리 모두 위한 배려

안 재 용
/담양소방서 고서119안전센터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 및 추락사 하는 사고와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공사현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행사장 등 차량 정체현상은 늘어만 가고 불법 주·정차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따로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수습을 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은 결코 어려운 일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도 아니다.

물론 많은 홍보활동으로 긴급차량 운행 시 길 터주기를 하는 운전자 또한 많아졌다.

하지만 길 터주기 요령을 몰라서 소방차(긴급차량) 접근 시 당황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도로 여건상 길 터주기가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 상황별 길 터주기 요령은 첫째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 우측이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셋째 편도 1차 도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혹은 일시정지 한다.

넷째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운전한다.

다섯째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 일반차량은 1차로 및3차로로 양보운전한다.

그 외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주정차 금지, 협소한 도로 양면 주·정차 금지,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차광막 등 설치하지 않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설치 및 주변 주차 금지 등이 있다.

위의 사항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 의식의 변화다.

도로에서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을 보게 된다면 위험에 처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도와주기 위해 출동중인 것을 인지해 긴급차량 통행을 위해 길 터주기를 해야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고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다.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제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3-8800
광고국	(062) 363-0005	정·경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회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체부	(062) 362-6116
인쇄처-남도프린테크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한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 · 독자의견 •TEL : (062) 363-8800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충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동……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994
두 암……266-1920
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정리……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3644-7272
나 주…010-3644-1309
담 양…010-3602-3550
곡 성…010-2632-4504
구 례…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4217-9480
강 진…010-3775-2369
장 성…010-3610-7824
무 안…010-9271-8517
여 수…010-8587-2288
함 평…010-3095-5842
영 암…010-4604-3742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